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설주차장 준공식

46억8천만 원 투입 2층 51면 규모
이용 편의 및 보행 안전 강화 기대

부산진구는 최근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설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7월 24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산림 속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 거점시설로 지난해 기준 연간 5만 1000여 명의 이용객이 찾는 명실상부 부산진구 레포츠 중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차장이 없어 차량 이용 불편 및 갓길 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부산진구는 2022년 사업 검토를 시작해 총 사업비 46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6월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이번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은 대지면적 1,095㎡, 연면적 1,406㎡ 규모 2층 3단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주차 면수는 51면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역주민과 체육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차장 준공을 축하하고 시

설을 둘러봤다.

김영옥 구청장은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설주차장 조성은 오랫동안 지속된 이용객들의 불편을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구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계(605-8742)

“거주환경 개선 위한 새뜰마을사업,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범천2동 절골·미실마을 현장 방문
구청장 직접 설명·주민 의견 경청
작년 국가 공모 선정, 39억 사업
10월 용역 마무리... 사업 본 궤도

부산진구가 울들어 박차를 가하는 범천2동 절골·미실마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범천2동 35~37동 일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영옥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실·과장, 관할 동장과 사무장 등이 총출동했다. 여기에 새뜰마을사업의 방향타를 잡을 총괄코디네이터와 용역사 관계자, 그리고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통장 및 주민 대표 4명이 합류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점검은 행정기관과 전문가, 지역주민이 마을 구축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며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먼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안전확보 분야 핵심 대상지인 △전우천 일원, △방재·커뮤니티 마당 조성 예정지 등을 점검하여 재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생활위생 인프라 사업의 일환인 △선북경로당·생활체육마당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이동 동선과 접근 편의성을 진단했으며, 주택정비 지원 사업 대상지인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위험 공폐가 밀집지역도 면밀히 살폈다.

김영옥 구청장은 “오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12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절골·미실마을이 안전·건강·활력이 이어지는 마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범천2동 절골·미실마을 새뜰마을사업은 2025년 7월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39.43억 원(국비 27.6억 원, 지방비 11.83억 원) 규모로 2026~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설문조사·주



민대학 운영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우선순위 사업으로 위험 주택 정비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마스터플랜을 2026년 10월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진구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절골·미실마을 새뜰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화

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경남 양산 소주동 소남마을과 부산 남구 우암동 소막마을 등 우수 지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민과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20여 명은 이 마을들을 둘러보고 절골·미실 마을의 새뜰마을사업 성공 결의를 다졌다.

문의 : 미래창조과 공간창조계(605-6135)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진경찰서·소방서와 안전협의체 구성

부산진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35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안전분야 최상위 평가로,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의 관리 체계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산진구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부산진구는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 부산진경찰서, 부산진소방서가 참여하는 ‘재난안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10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문의 : 안전도시과 자연재난계(605-6322)

안전관리계(605-4647)